樞密公派大宗會 定期總會 開催

추밀공파대종회 정기총회 개최

△12월18일 자유총연맹대회의실에 서 추밀공파대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원내 좌 : 권혁승 전임회장/우: 권경석 신임회장)

지난 12월18일 서울시 장충동 자유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추밀공파대종회 대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영빈사무국장의 성원보고에 이어 회장의 개회선언, 시조태사공께 망배, 열선조 및 작고하신 고인에 대한 묵념과 권혁승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요지는 "추운 날씨에 참석하신 파친께 감사드리며 추밀공파조와 충헌공현조 세향을 봉헌하고 종무를 원만히 이루게 됨은 파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결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정간공사우(靖簡公祠宇)를 건립하여 문청공(文淸公), 문정공(文正公) 세향을 봉행키로 하였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늘 종약을 개정하면 앞으로 파친들이 사우에서 세향을 봉행할 것이니 많이 참제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 8년간 봉직함에 지역간담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종재를 증액시키는데 열성을 다하여 2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종회의 과제는 많은 파친들이 동참하여 번영을 이루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영빈국장의 경과보고와 감사의 감사보고, 결산보고,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종약개정건은 정간공사우에 문청공, 문정공 조고를 봉안하고 세향을 위한 제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임원개선(任員改選)에 들어가 권영환고문이 임시의장으로 등단하여 권병선 창화공회장의 발의로 3개파에서 3인씩 9인을 추천하여 전형위원들이 회장을 선출하기로 승인받아 창화공계 3인, 충정공계 3인, 정헌공계종 3인이 모여 숙의한 바 현 대종원 사무총장인 권경석(權景晳)씨를 선출하였다. 감사는 3개 파에서 추천하여 權炳文, 權五敦, 權虞植목사공 회장으로 의결하였다.

이어 권혁승회장의 그간 공로를 찬양하여 권공범씨가 족자를 만들어 기증하여 박수를 받았으며 권경석(權景晳)신임회장의 인사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권경일 기자)

다음은 신임회장의 취임사 요지를 소개한다.

△전형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

"就 任 辭

樞密公派大宗會長으로 選出해주신 族親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職務를 誠心으로 履行할 것을 受諾합니다.

먼저 지난 8년간 大宗會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權赫昇會長님께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赫昇會長님은 赴任하여 支派宗中을 結束시키고 郞中公壇所 移壇에 樞密公派에서 가장 많은 獻誠을 하도록 하여 權門에 樞密公派의 位相을 드높이셨으며, 大宗會를 健實하게 運營함으로써 坦坦한 基盤을 造成하신데 功勞가 至大하셨습니다.

저는 36世 忠靖公系 文忠公子孫으로 陸軍士官學校와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經營학과를 卒業하고 國防部와 陸軍本部 企劃部署에서 20年間 勤務하면서 大統領 表彰도 받고 그 經驗을 바탕으로 安東權氏의 兩大 機構를 統合시키는데 絶對的인 役割을 하였음을 自負하면서 安東權氏大宗院 事務總長으로 權門의 살림살이를 無難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會長으로 推戴해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樞密公 後孫들은 36萬名으로 推算되고 있습니다. 安東權門의 1/3以上을 占하고 있는 樞密公派大宗會를 圓滿히 이끌어 가며 前任 赫昇會長님께서 이룩하신 業績을 勘案하여 信念과 熱情으로 事業을 計劃하고 推進해 나아가겠습니다. 樞密公派 族親여러분께서 安東權門을 爲하고 樞密公派의 發展을 祈願한다는 마음만 가져주신다면 제가 일하는데 한결 活力素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安東權門의 大派를 이끌어가는 牽引車가 되도록 誠心을 다하겠습니다. 권기 1585년 12월 18일 權景晳"

僕射公派祖府君 秋享

복야공파조부군 추향

△안동시 서후면 교리 복야파조 단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복야공파(회장 權啓東)는 2014년 11월 23일(일)(음력 10월 초2일) 10시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낸 정2품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상장군(上將軍)을 겸하였던 휘(諱) 수홍(守洪) 복야공파조부군(僕射公派祖府君) 추향(秋享)을 경향각지(京鄕各地)서 모인 180여명의 파친(派親)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참제(參祭)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권오수(權五秀:安東), 아헌관(亞獻官) 권세목(權世穆:義城), 종헌관(終獻官) 권기선(權奇宣:慶北警察廳長), 축(祝) 권혁창(權赫昌:大邱), 집례(執禮)는 권오주(權五柱:安東)씨가 봉행하였다. 매년 정일에 향사(享祀)를 봉행하고 파조부군(派祖府君)의 음덕(蔭德)을 기리며 승조이념(崇祖理念)을 확립하고 후손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이날 청장년회원과 부녀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참제원들에게 차와 간식을 제공하며 제수 운반과 중식, 음복 등 향사(享祀) 봉행에 많은 일을 담당하였다.

추향 봉행이 끝나고 권계동(權啓東) 파종회장은 삼헌관(三獻官)을 일일이 소개하였는데 초헌관(初獻官) 권오수(權五秀)는 안동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였으며 파종회 고문, 대종원 부총재 등으로 문사(門事)에 열성을 다하고 있고, 아헌관(亞獻官) 권세목(權世穆)은 파종회 부회장, 대종원 부총재이며, 의성향교(義城鄕校) 전교(典校)이고, 종헌관(終獻官) 권기선(權奇宣)은 치안감(治安監)으로 현재 경북경찰청장(慶北警察廳長)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음복례

향사(享祀) 때에 단소 앞 잔디 위에 까는 초록색 깔개는 권세목 부회장이 구입하였고, 관복(冠服)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이 비용 250 만원의 전액을 대종원(大宗院) 감사(監事)인 현빈세무법인 권영훈(權寧焄) 회장이 모두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참제(參祭)해 주신 파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앞으로도 추향제(秋享祭) 때 마다 많은 족친이 참제해 주고 파종회 제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간단한 인사말을 하였다. 권오익 총무부장은 당일 330만원의 헌성금(獻誠金)이 접수된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제례행사를 모두 마치고 단소 앞 잔디밭에서 따뜻한 국밥으로 점심을 먹고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환담을 나누며 오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청장년회원과 부녀회원들이 일회용 도시락에 음복을 담아 나누어 주자 이를 받아 들고 다음해를 기약하며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총무부장 權五翼〉

靖簡公 휘 僖 秋享祭 奉行

정간공 휘 희 추향제 봉행

△정간공추향제 초헌관 영환회장이 헌작하고 있다.

지난 11월30일(음력10월9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정간공 사우에서 종원 2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추밀공파 15세 정간공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정간공종회에서는 사우를 건립하여 12세 문청공(文淸公) 13세 문정공(文正公), 14세 충정공(忠靖公) 4위분 추향을 봉행하려고 하였는데 신주봉안고유(神主奉安告由)가 미루어져 금년은 정간공만 제향키로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며 11월 26일 추밀공파 이사회에서 보고되었다. 당일 비가 와서 새로 신축한 재실에서 봉행하였으며 분정은 초헌관 권영환(寧桓), 아헌관 순만(純萬), 종헌관 혁찬(赫燦), 집례 혁노(赫魯), 대축 영준(榮峻)씨로 하였다.

정간공(靖簡公)은 공민왕 10년 홍건적이 10만 대군으로 침략하니 왕은 안동으로 몽진하고 공은 호군으로 출전하여 계책을 내 놓아 공이 몸소 돌격하니 적진이 무너졌다. 공은 불교를 숭상하여 여주 신륵사 대장각을 짓고 74세에 조선이 개국하니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의 공훈을 받고 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이 되었다. 한양으로 천도되고 권문의 4始중 하나인 기로소(耆老所)의 전신인 후기영회(後耆英會)가 창립되었는데

△정기총회에서 영환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수좌(首座)에 올랐으니 권희(權僖), 권중화 등 10인이다. 태종 원년 검교의정부좌정승겸 수문전태학사가 되었다. 태종 5년 87세로 졸하니 상왕과 태종이 사제(私祭)하고 정간(靖簡)의 시호를 내렸다.

제례 후 정기총회를 개회하여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 및 예산안 심의 의결하였으며 임원개선에 들어가 고 영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권혁승고문이 임시의장으로 진행하여 3파에서 선임된 전형위원이 숙의한 결과 현 사무국장인 권의철(義喆)씨가 선임되어 만장일치 의결하였고 감사는 권영방(權寧邦), 권혁윤(權赫允), 권공범(權公範)씨가 선출되었다. 사우건립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해 가는 중 난관에 봉착하였는데 고 寧偉회장이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아 완공을 앞두고 급기야 별세하여 영환회장이 맡아 상량(上樑)을 한바 있다. 〈권경일 기자〉

南岡公 東興 府院君 諱 常 歲享

남강공 동흥 부원군 휘 상 세향

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남강공 권 상의 경기도 지방문화재 109호로 지정된 화산부원군 고손 남강공 휘 상의 묘역에서 (휘 진 참봉參判公·휘 상 동흥부원군南岡公·휘 수 부윤공府尹公·휘 황 지사공知事公) 4 위 분의 세사를 봉행했다.

동흥부원군 휘 상(東興府院君 諱 常) 자는 길재(吉哉)이고 참봉공(參奉公) 휘(諱) 진(振)의 외아들로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종 23년 21세의 식년시 진사 3등으로 합격하였고 광흥창수를 지냈으며 76세에 선공감정에 이르렀다. 이때 효와 순행이 알려져 통정대부에 오르고 80세가 되어 수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면서 증조까지 추증 받는 은전을 받았다.

<宣祖實錄>에 "권상은 천성이 매우 효성스러워 7세에 부친을 여위니 몸소 제전을 집행하였으며 모친의 눈물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드리기를 계속하고 모친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廬墓) 하고도 조석으로 사당에 배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임금이 정려(旌閭)를 세우게 하였다.

조야가 효행(孝行)을 천거할 때 권 상(權 常)을 으뜸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598년 향년 82세로 졸하였는데 후에 아들 희와 협이 귀히 됨에 따라 순충적덕·보조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영의정·동흥부원군(純忠積德·輔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東興府院君)으로 추증(追贈)되고 사림에서 숙종 36년에 청주에 백록서원을 건립하여 제향하였고 영조 36년 봉계서원으로 이향되었다가 1966년에 백록서원을 복원 하였으며 사당(祠堂)을 세워 4대가 영구히 기제(忌祭)를 지내도록 부조지전(不祧之典)이 내렸다.

오늘의 歲祀 奉行에 獻官 執事 分房

參判公

초헌관(初獻官) 熙成 아헌관(亞獻官) 寧雄 종헌관(終獻官) 興顔 집례(執禮) 貞澤 대축(大祝) 熙哲

南岡公

초헌관(初獻官) 會廷 아헌관(亞獻官) 貞澤 종헌관(終獻官) 贊玉 집례(執禮) 寧雄 대축(大祝) 熙哲

府尹公

초헌관(初獻官) 會廷 아헌관(亞獻官) 鎬春 종헌관(終獻官) 泰均 집례(執禮) 貞澤 대축(大祝) 熙哲

知事公

초헌관(初獻官) 性達 아헌관(亞獻官) 贊玉 종헌관(終獻官) 仁澤 집례(執禮) 貞澤 대축(大祝) 彝成

正朝公派大邱派親會文化遺蹟地踏査

정조공파대구파친회문화유적지답사

정조공파대구파친회는 11월8일 회원, 가족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많은 문화유적을 안고 있는 경북영양으로 석계 이시명선생이 병자호란의 국치를 부끄럽게 여겨 벼슬을 사직하고 이곳에 재령이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두들마을, 석계고택 석천서당과 정부인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예절관, 그의 후손인 문학의 거장 이문열문학관을 돌아보고 승무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조지훈시인의 고향인 주실마을을 돌아보았다.

한편 12월11일에는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 임원개선에 들어가 영일(寧日)자문위원을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하고 임원들은 유임하기로 하였다.

신임 회장(寧日)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선대 회장, 임원, 회원들의 업적과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회원들의 뜻에 부응하여 문사발전에 열심히 기여할 것을 밝혔다

• 신임임원명단

·고문 權五潤(留) 權寧卓(留) 權五德(新) ·회장 權寧日(新) ·부회장 權赫寅(留) ·감사權世賢(留) ·청년부장權寧極(留) ·자문위원 權五三(留) 權在錫(留) ·權정순(留)·총무 權赫相(留) (총무 혁상)

大宗院 任員選任

權寧達 副總裁

안동권씨대종원은 12월 3일부로 권영달(80歲, 34世 복야공파)씨를 부총재로 선임했다.

영달부총재는 유학이 해박하여 덕천서원 원임과 단성향교 전교를 역임하고 산청문화원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문중 대소사에 공헌하면서 현재 안분당종회(安分堂宗會)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파종회장 협의회에 회장단을 초청하여 융숭한 접대도 하였다. 거주지는 산청군 단성면 호암로 264번길9-16이다.

權九珉 副總裁

동일부로 권구민(68歲, 39世 부정공파)를 부총재로 선임했다. 구민부총재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주)한양대표이사·회장, 주)건영 대표이사·회장, 주)신창건설 대표이사·회장직을 두루 역임한 건설업계 공로가 커 1991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세거지는 안동시 남선면 노암이고 거주지는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길14.103-1802이다.

權純宣 宗務委員

78歲, 37世 추밀공파

강원도 원주시 신촌길 6(태장동)

원앙 CICO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정용 스테인레스 씽크볼 전문 생산업체

국내 총판 대리점 46개, 미국 LA지사 설치, UL마크 획득〈업계 세계 최초〉 인증,

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수출탑 수상! (株)天一

△충북 진천에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는 (株)天一 전경

주식회사 천일

회 장 권영구 대표이사 권우상

365-8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월촌1길 118번지

Tel : 043)533-1150~4 / Fax : 043)533-7210 Tel : 02)812-1101(代) / Fax : 02)816-7287

Http : //www.cheonil9.co.kr

LA지사 : Tel : +1-310-324-5630 / Fax: +1-310-324-5691